社 說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 급선무

— 우리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며

지난 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진행된 수원캠퍼스 대동제는 젊음의 열기와 싱그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반면 비 오는 날의 감상과는 또 다른 우울한 기분들을 느꼈을 것이다. 다름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밤에 히치하이크를 하다가 한 학생은 성 폭행을 당하고 또 다른 학생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수원캠퍼스가 생긴지도 이제 15년. 그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부족한게 많지만 우리는 눈부신 발전들을 이뤄왔다. 교통문제만 해도 그렇다. 91년까지만 해도 학교를 출입할 수 있었던 대중 교통수단은 스쿨버스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운수회사의 협조로 좌석버스가 유치되는 등 그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느끼는 교통불편은 그다지 달라진게 없었다. 밤 10시 40분의 막차 이후에 학교는 배 끊어진 낙도로 변하고, 등·하교길 스쿨버스를 이용한과 치면 길게 늘어서 있는 줄에 먼지 기점을 해야하는 것이 오늘의 교통현실이다.

오후부터 시작된 히치족의 활동은 저녁 무렵이면 그 숫자가 수 십명에 이르러 장사진을 이루고 마지막 버스가 끊긴 뒤에도 지나가는 승용차들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학생들을 보아왔다. 대중교통수단이 버젓이 그 옆에 서 있을 때에도 말이다. 이런 히치하이크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다.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갈수 있고, 교통비와 귀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뜻만 맞는다면 얘기치 않았던 미팅까지 하기도 한다. 즉 대학생으로서의 또 다른 낭만(?)으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위험한 인식이 학생들에게 심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히치 풍속도에 대한 우려는 성 폭행이라는 결과물로서 표출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위험의 불씨를 담고 있었다.

이번 일 이후 학교나 학생회측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폭적으로 유치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차가 10시 40분까지 있고, 서울근교 어느 학교보다 스쿨버스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교통불편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최대한 수용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통정책은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스쿨버스 배차시간을 전 구간에 걸쳐 지금보다 1시간 연장 운행하는 등의 단기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남은 소들을 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시대·의식 변화 발맞추기

— 황석영씨 국보법적용을 보고

얼마전 소설가 황석영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 소식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국가보안법상의 기밀 누설죄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신문이나 방송등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 국가단체 곧, 북한에 이로운 정보라면 국가기밀 누설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요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황석영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법리해석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지는 정부나 사회일각의 경직성의 위험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중 북한을 우리와 한민족임을 천명한 내용은 현정부가 지니는 이전의 권위적인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대북관계의 진전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인모 노인의 북송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른 기대감은 현재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경험했듯이 이전의 정권들이 통일정책의 집행과 논의의 장을 독점함으로써 빚어진 동맥경화증을 지금의 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은 출범초기 많은 이들에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개방성과 진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얼마전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소송제기는 정부의 개혁성 후퇴와 더불어 보수로의 회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단의 수구세력들이 던지는 국면전환의 구체적인 실례다.

차제에 통일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이 어떤 골격과 내용을 채워갈지는 모두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요즘들어 급격히 높고 있는 보수적인 분위기로는 우리가 바라는 전향적인 정책들이 입안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앞서게 된다.

시선을 돌려서 통일된지 불과 4년도 채 안되어 다시금 내전상태로 돌입한 예멘의 경우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동일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이란 단순한 체제 통합의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오랜 시기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화적 차이와 사고체계의 이질성까지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의미로서의 통일이 대전제 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모든 통일관련 정책과 논의가 정부로 집중되어 있고 그 논의마저 보수적인 인사와 정보의 불공정한 유통속에서 이뤄진다면 예멘과 독일의 경우에서 더 큰 진전을 바라기 힘들어 보인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활발한 논의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부의 통일 정책이 출범 초기의 전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전향적인 정책입안과 집행만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경쟁 활성화가 열쇠

— 한국외환은행 한국통신 주식입찰사건을 바라보며

이 상 규
〈사회대교수·무역학〉

지난 4월말 한국통신주식의 경쟁입찰시에 입찰대행자였던 외환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최저가격수준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낙찰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이 내부자 거래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지만 사후수습 과정에서도 전산조작등의 문제로 사건이 더욱 악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처음으로 내부 승진한 은행장이 물러나야 했고, 공기업의 민영화방식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은 비단 외환은행과 금융기관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럼 뿌리깊게 퍼져 있어 곪고 있는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입찰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조직이기주의의 내지 집단이기주의를 자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내부체제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사건에서 외환은행의 입찰참여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엘리트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외환은행과 재무부에서 이에 따른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입찰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조직이익을 앞세운 조직이기주의가 건전한 상식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직과 개인의 이해가 사회전체의 이해보다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겉으로는 조직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몇몇 실권자들의 이해관계와 담합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직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내부 안에는 물론 조직내외부간에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체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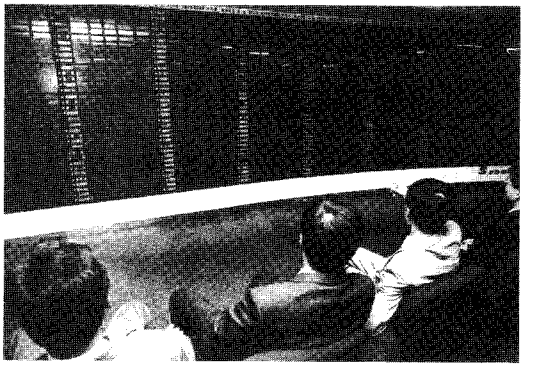
둘째,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담당실무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식이 뿌리뽑혀야 하여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담당실무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식이 뿌리뽑혀 져야 한다.

최근에 권한의 이양이 많이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은행과 같이 거대한 조직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모든 일들을 챙기는 것이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관장이 옷벗는 것으로 끝내는 식의 책임추궁에는 한계가 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실무자들은 규정미비 또는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필요 등의 이유로 일처리를 미루는 일이 일쑤이다. 실무자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소신있는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권한과 이에따른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게 선이 그어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당한 업무처리로 물의가 아기된 경우에는 실무자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조직과 기관장에게 떠넘기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셋째,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 법률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 존중되는 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법대로 하다가는 되는 일이 없다며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힘센 사람이나 힘센 조직에 의지하면 규정과 법률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법률과 규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피동적인 일처리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정과 법률보다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건전한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때에만 〈입찰대행자가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변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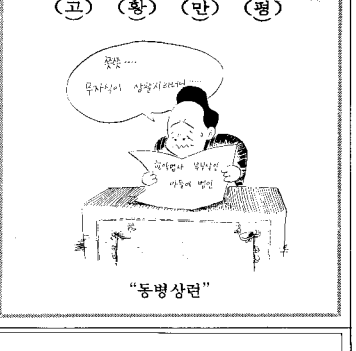
끝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란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의 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주인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사건을 계기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민영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푸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달려 가야될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사건처럼 출발선에서부터 맥이 빠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조직이기주의가 건전한 상식을 무시, 조직과 개인의 이해가 사회전체의 이해보다 우선되는 현실"



입찰대행자의 입찰 참여가 원인
건전한 상식 통용되는 사회지향해야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담당 실무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식 이 뿌리뽑혀야…



신세대 캐릭터 스타일의 이탈리안 모드
엑스게이트

WOOL MARK
울제품을 사실때는
울마크를 확인 하세요.

Cool Wool의 상쾌함
젊은 감각의 '엑스게이트' Cool Wool로 즐긴다.
패션감각과 고급품질의 Cool Wool 지켓과 수트
남성 비즈니스 웨어의 신동
(주)삼풍의 신세대표현 엑스게이트
가볍고 유연한 Cool Wool로 착용감의 상용성을,
Italian Style의 세련된 신세대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세대 표현정장 X-GATE
X-GATE FOR MEN

CAMBRIDGE MEMBERS
(주)삼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1-15 캠브리지빌딩
대표전화 : 586-0303

엑스게이트 매장
강 남 점 552-4586
잠실롯데월점 412-8065
롯데백화점 776-4171
마도로스본점 774-5685
한대본점 511-6018
남교하본점 536-2830
삼풍백화점 535-6061
진로본점 523-9392
그랜드백화점 568-0580
성동그랜저스 538-7574
영등포롯데입 677-1791
안양본백화점 68-8238
수원뉴코아점 33-0274
부천중앙서점백화점 512-7980
동수원뉴코아점 33-9041
미아리신세계점 946-1818
왕십리대리점 855-0008
대전점 256-4730
광주충장점 226-2934
대구중앙점 252-7725
부산광복점 245-5867
대전백화점 256-0367
대전동양백화점 254-6356
광주롯데백화점 224-3223
부산태화점 802-6150
전주중앙대리점 84-1800
인천대리점 855-1286
군산대리점 445-2980
순천대리점 52-2257
포항대리점 47-6607
울산대리점 45-0039
광명대리점 684-8600
충주대리점 645-4767
제주대리점 52-5596
춘천대리점 55-3788
속초대리점 635-7878
여수대리점 62-4560